

# 일본 선진 어촌어항 개발사례 조사단 시찰 상보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수행해 오고 있는 어촌어항발전기 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사업과 관련, 해외 선진 어촌어항에 관한 기본자료 및 개발현황, 관광현황 등을 조사·수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일본 간토, 홋카이도, 큐슈 지역 등을 시찰했다.

이번 조사단은 3개 팀으로 나뉘어 파견되었는데, 먼저 1차 조사단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본 간토지역의 요코하마 베이

사이드마리나, 아이즈어항, 이나게해안을, 2차 조사단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홋카이도지역의 후루비라어항, 비쿠니어항, 노보리베츠어항, 오이나오시어항을, 3차 조사단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큐슈지역의 가네자키어항, 와이타어항, 나가사키어항 등을 시찰했다.

조사단은 일본전국어항어장협회를 방문하여 어항개발, 관리실태 등과 관련된

제반자료와 어항관련법, 어항정비와 관련한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였고, 치바와 시즈오카에서는 도·어교류사업과 해변정비사업 현장, 관광 위락단지 등을 시찰하였다. 또, 후쿠오카에서는 수산기본계획 관련 현황을, 나가사키에서는 어촌체험어장 관련 현황과 어촌정비 및 어촌관광진흥사업 관련 현황을, 홋카이도에서는 선진 어항건설 및 어촌관광 사례 등을 견학·조사했다.



▲ 조사단 일행은 일본전국어항어장협회를 방문하여 어항개발, 어항관련법, 어항정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간토지역 요코하마 베이사이드마리나의 방문객부두 접안시설.



▲ 홋카이도 시라오이군 노보리베츠어항의 방파제 및 소파블록 전경.



▲ 최익영 전무이사 이하 조사단 일행이 홋카이도개발국을 방문하여 개발관계자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 홋카이도 물오란시는 오이나오시어항과 인공섬과의 연육교를 시공중에 있다.



▲ 큐슈지역 나가사키어항의 부잔교식 물양장. 알루미늄 소재의 트러스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큐슈지역 와이타어항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조사단.